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⑳ 남종선(南宗禪)의 창립자, 혜능(慧能)

▶ 한줄 요약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을 계승한 혜능은 중국불교에 결정적인 사상적 변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佛'에 대한 신앙을 '自心' 신앙으로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을 계승한 혜능은 중국불교에 결정적인 사상적 변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혜능의 어록(語錄)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이하 〈단경〉)이 후대에 많은 첨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혜능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단경〉에 나타나는 사상은 가히 '혁명' 적이어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른바 '육조 혁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개 조사의 어록을 '경(經)' 이라고 칭하는 것과 '단(壇)' 을 붙이고 있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래 불교에서는 '일겁일불(一劫一佛)'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겁(現劫)의 명칭은 '사바(娑婆)' 로서 이 겁의 법주(法主)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임을 제창한다. 그런데 〈단경〉에서 '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은 혜능이 '부처' 라는 의미라 하겠다. '경' 은 '부처님의 말씀' 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 은 바로 '계단(戒壇)' 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경〉이란 중국인인 혜능이 부처가 되어 새롭게 '계단' 을 세우고, 새로운 교의(教義)를 제창하여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니, 가히 '혁명' 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단경〉에는 기존의 불교사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 제시될 것이고, '계' 의 수여 역시도 새로운 형식과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단경〉의 사상적 내용과 수계를 모두 논함은 짧은 글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단경〉의 출현은 중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중국 역사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10대 고전' 에 선정되어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경〉의 원천인 혜능(638~713)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하겠다.

중국불교는 '안사(安史)의 난' (755~763) 이후에 조사선(祖師禪)이 주류가 되었고, 〈단경〉이 조사선의 종전(宗典)으로 받들어지면서 혜능의 전기는 다양하게 각색되어 출현하고 있다. 혜능의 전기는 상당히 많은 전적에 실려 있고, 자료에 따라 '능선사(能禪師)' , '惠能' , '慧能' 등으로 표기된다. 종보본 〈단경〉에 부록으로 실린 〈육조대사연기외기(六祖大師緣起外記)〉에서는 혜능이 태어났을 때, 어떤 승려 둘이 찾아와 부친에게 이름을 '혜능' 으로 지으라고 하면서, "'혜(惠)' 는 법혜(法惠)로 중생을 구제함이고, '능(能)' 은 불사(佛事)를 능히 일으킨다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고사를 싣고 있다. 그렇지만 후대로 갈수록 '慧能' 표기가 일반적이다.

돈황본 〈단경〉에서는 혜능의 부친이 본래 범양(范陽: 현 河北省 保定市 涞水縣) 출신의 관료였지만, 좌천되어 신주(新州: 현 廣東省 新州縣)로 쫓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육조대사연기외기〉에서는 혜능의 부친이 좌관(左官)으로 신주로 부임했으며, 혜능의 모친은 회임한 지 6년 만인 정관(貞觀) 12년(638) 2월 8일 자시(子時)에 혜능을 낳았다고 한다. 당시 광동(廣東)은 변방으로 비교적 천대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래 중원(中原)에 가까운 범양 출신임을 강조한 것이고, 2월 8일 자시는 주지하다시피 석존(釋尊)이 출가한 일시와 같다. 따라서 이는 혜능의 가문과 출생에 신이(神異)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단경〉의 여러 판본과 다양한 전기를 대조하면, 혜능의 출신과 행적에 대하여 조금씩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조사선을 일으킨 조사에 합당한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혜능은 부친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 집안이 곤궁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땔나무를 팔아서 연명했다는 내용은 모든 자료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조계대사별전〉에서는 혜능의 30세(혹은 33세)에 조계(曹溪)로 갔는데, 그곳에서 유지략(劉志略)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유지략의 출가한 고모인 무진장(無盡藏)으로부터 〈열반경〉의 독송을 듣고서 그 구절을 해석하자 무진장이 경전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지만, 글을 모른다고 했다는 고사가 실려 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혜능은 이 시기에 3~4년간 불법을 공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함형(咸亨) 3년(672) 혹은 5년(674) 혜능은 혜기(惠紀) 선사로부터 황매에 홍인의 선문(禪門)에서 수학하라는 충고를 받고 홍인 문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단경〉에 우연히 〈금강경〉의 독송을 듣고서 홍인 문하로 갔다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혁명'으로 불리는 혜능의 〈단경〉
중국 전체 사상에 거대한 영향력
'10대 고전' 선정, 지식인 필독서
기존 불교 · 禪과 전혀 다른 사상



소주(韶州) 자사는 혜능이 살았던 신주의 고택에 사찰을 건립하여 국은사(國恩寺)로 하였고, 연화(延和) 원년(712)에 혜능은 국은사에 머물다 선천(先天) 2년(713) 8월 3일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였다. 사진은 국은사 모습.

여러 정황상 혜능은 홍인의 선문에서 수학하기 전에 이미 불법을 공부했으며, 나아가 '사도(私度)' 로 출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단경〉에 묘사되는 홍인으로부터 법을 얻고 갑자기 동산법문을 떠났다는 내용은 조사선의 입장에서 극적인 스토리텔링의 기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홍인 문하를 떠나 숨어 살았다는 점은 그 심증을 더한다. 홍인 문하에서 신수(神秀)와 노안(老安) 등도 '사도' 였던 까닭에 갑자기 홍인 문하를 떠난 사실이 있다. 만약 〈단경〉의 묘사처럼 행자였다면 홍인 문하를 떠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혜능은 쫓기는 몸이 되어 광동의 사회(四會), 회집(懷集) 등지로 계속 도망했으며, "사람들과 섞여 농사짓고 장사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7년에 이르도록 자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혜능은 의봉(儀鳳) 원년(676)에 광주에 이르러 제지사(制旨寺)에서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석에 참여했다. 〈단경〉에는 이곳에서 유명한 '깃발' 의 고사를 싣고 있는데,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마음' 이 흔들린다는 내용이다. 이후 혜능은 인종법사로부터 드디어 계를 받고 정식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며, 그해 2월 28일 법성사(法性寺)에서 지광(智光) 율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혜능이 '사도' 의 경력이 있었음이 추정되는데, 계를 받자마자 바로 구족계를 받기 때문이다. 이후 혜능은 40년 동안 법을 펼치는데, 중요한 도량은 곡강현(曲江縣; 현 廣東省 韶關市)의 성내에 있는 대범사(大梵寺)이고, 또 하나는 조계촌(曹溪村)의 보림사(寶林寺) 등 두 곳이다.

혜능의 명성이 높아지자 신룡(神龍) 원년(705) 중종(中宗)은 사신을 파견하여 입경할 것을 청했지만, 당시 노환으로 거절하였고, 중종은 마납가사(摩納袈裟)와 오백 필의 비단을 내렸으며, 보림사를 중흥사(中興寺)로 개명하였다. 또한 소주(韶州) 자사는 혜능이 살았던 신주의 고택에 사찰을 건립하여 국은사(國恩寺)로 하였고, 연화(延和) 원년(712)에 혜능은 국은사에 머물다 선천(先天) 2년(713) 8월 3일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였다. 이후 제자들은 혜능의 유체를 조계로 모셨으며, 헌종(憲宗) 시기에 '대감선사(大監禪師)' 의 시호를 받았다.

혜능의 제자들은 상당히 많지만, 〈경덕전등록〉과 〈전법정종기〉에는 43명의 제자를 거명하고, 〈조당집〉에서는 8명의 제자를 거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주목할 이들은 청원 행사(靑原行思), 남악 회양(南嶽懷讓), 하택 신회(荷澤神會), 남양 혜충(南陽慧忠), 영가 현각(永嘉玄覺) 등이다. 그 가운데 신회는 당시 주류였던 신수의 북종에 대항하여 '육조현창운동' 을 펼쳤으며, 하택종(荷澤宗)을 세웠다.

송대 지반(志磐)이 찬술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는 "육조 이후 두 파(派)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청원 행사이고, 행사는 석두 희천(石頭希遷)에게 전하였으며, 그 문하에 조동(曹洞) · 운문(雲門) · 법안(法眼)을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남악 회양으로, 회양은 마조(馬祖)에게 전하였고, 그 문하에 임제(臨濟) · 위앙(口仰)을 이루었다. 이렇게 오가종파(五家宗派)가 되었으나 도(道)는 하나일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계' 에서 조동 · 운문 · 법안의 3종이 출현하였고, '남악계' 에서 위앙 · 임제의 2종이 출현하여 '오가(五家)' 를 이루었으며, 이는 모두 혜능으로부터 계승된 것이기 때문에 "도는 하나일 뿐"이라고 칭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가' 는 바로 중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 그 법이 전해져 현재까지도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혜능의 선사상은 당연히 〈단경〉으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혜능의 직제자인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이 "저 〈단경〉을 개환(改換)하여 비천한 논리를 더하여 섞어서 성의(聖意)를 깎아버리고, 후학들을 미혹하여 어지럽게 하니, 어찌 언교(言教)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 괴롭다! 나의 종(宗)이 손상되었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혜충의 시대에 이미 〈단경〉이 있었으며, 그 사상에 대한 개환도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단경〉은 20여종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돈황본이 최고본이고, 종보본이 최후의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돈황본도 학자에 따라서는 당말(唐末) 혹은 오대(五代) 시기의 필사본이라고 하니, 혜능조사의 온전한 법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단경〉의 최고본과 최후의 판본을 통해 그 사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경〉의 선사상은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 간략하게 논하자면, 무엇보다도 '불성' 을 우리가 늘 접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성(人性)과 심성(心性)으로부터 접근하여 '자심(自心)' 과 '자성(自性)' 으로 귀결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깨달음으로 '돈오(頓悟)' 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돈오' 에 입각하여 정혜등학(定慧等學)과 '무념(無念)' , '무상(無相)' , '무주(無住)' 를 수행과 궁극적인 경지로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단경〉의 사상은 기존의 불교나 선에서는 '불성' 을 '인성' 을 초월한 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라 하겠으며, 이로부터도 '혁명' 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 〈단경〉은 기존의 불교나 선과 차별적인 사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를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단경〉의 수행한 사상적 작용을 최대한 간략히 말하자면, 기존에 '불(佛)' 에 대한 신앙을 '심(心)' , 그것도 '자심(自心)' 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